

약용작물 25분의 1로 '싹뚫'

"일률적용 안된다" 목청

건설교통부가 농지를 공공 용지로 편입할 때 지급하는 실농보상비의 감축이 내년 부터는 품목별로 최저 현행의 4% 수준까지 줄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근교 지역 농업인들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5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법의 보상비 기준은 작물별 구분 없이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따른 농가 평균수입의 2년분으로 규정돼 있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농작물별 소득의 3년분을 보상토록 하는 현행법과 비교할 때 보상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근 농진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현행 보상비는 10a당 약용작물이 6,086만원, 화훼 2,032만원, 시설과수 1,609만원, 시설열매채소류 1,488만원, 시설 잎 뿌리 채소류 824만원, 노지과수 493만원, 노지채소 343만원, 식량작물 137만원이다. 반면 개정법에 따른 보상비는 모든 작물에 동일하게 247만원으로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행 보상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약용작물의 경우에는 현행 보상비의 4%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경기 등 도시근교지역의 시설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들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보상비 기준은 형평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농림부와 농진청에서도 작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실농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데다 보상을 위해 개발 예정지에 의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사중이어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회 국제박람회

12~16일 삼성동 코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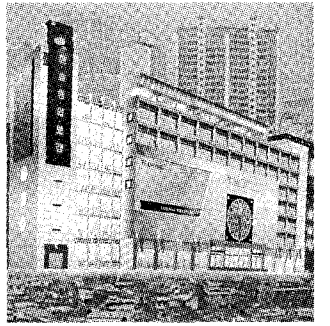
제4회 한의학회 국제박람회(EXOM 2002)가 구랍12~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방 의료용구, 약초 및 약재, 한방 병·의원, 건강 보조식품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돼, 한방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건강의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해 한의학과 난치성질환에 관한 전문 학술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성인병, 비만, 아토피, 한방 성장 및 두뇌개발 등 건강강좌도 진행됐다. 그밖에도 최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상체질과 관련, 체질감별 및 비만도 측정, 건강상담,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동시장 주변 '한방타운' 변신

전국 한약재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경동시장 일대가 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식 '한방테마상가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전산업개발은 경동시장 내 한방관련점포 밀집 지역에 연면적 9400여 평 규모의 한방 테마쇼핑몰 '한방천하'를 분양중이다. 지하6층~지상18층 규모로 지상2~3층은 인삼전시장, 4~5층은 한방의료기 전문점, 6~7층은 침술원이 자리잡고 나머지 층에는 오피스텔과 사무실이 들어선다. 점포 당 분양평수는 5~24평으로 분양가는 개발비를 포함해 점포 당 8200만~3억 700만원선.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등 한약재시장이 위치해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형 한방테마상가 3곳이 잇따라 공급됐다. 앞으로 2~3곳의 상가가 추가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동대문 패션타운에 이어 독자적인 테마상권지역으로 자리 매김 할 전망이다.

☎02-957-1795

중국산 한약재 표백제 다량검출

소시모 조사... 작약은 이산화황 허용치 100배 초과

'중국산 한약재에서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를 검사한 결과, 특히 중국산에서 표백제가 과다하게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경동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작약·갈근 등 한약재 45점을 수거, 표백제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표백제가 30점에서 검출됐으며, 그 중 22점은 허용기준치인

30을 초과했다는 것. 특히 22점 중 21점이 중국산이라고 소시모측은 밝혔다.

김재욱 소시모 회장은 "중국산 작약의 경우 허용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3,256.5이 검출됐다"면서 "표백제는 천식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만큼 수입 한약재를 보다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현재의 표백제 허용기준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중 기준치를 제정, 검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관개정소위원회 이모저모

정관개정 소위원회 첫모임

○...지난 100차 중앙이사회 결과 발족한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엄경섭)는 지난 12월 3일 롯데호텔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각도지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이날 정관개정소위원회에서는 기존의 협회 정관내용 중 △선거직 임원선출방법 △임원의 직무 △감사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별도 마련한 이사회 규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거쳤다.

선거직 소견서도 함께 제출토록

○...이날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직 임원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서류 외에 선거직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는 안이 제기됐다. 또한 임원의 구성은 직전회장을 포함 부회장 5인, 중앙이사로 구성하되 삭제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전무 및 상무이사제는 현행대로 유지 존속기로 했다.

부회장 역할 담당제 눈길

○... 감사의 직무와 관련해 감사단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6개월에 1회씩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정관에 삽입하고 임시감사는 감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이번 소위원회에 제시된 개정안에는 5명의 부회장들이 홍보, 재무, 중앙공관장 영업 등 업무분야별 역할 담당제를 실시하자는 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기도.

재배교육 관련사항 명문화 바람직

○... 이용환 지회장은 "우리협회는 생산자단체인 만큼 생산 재배에 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관 상 재배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해 비중있게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상임부회장제가 제안되기도 했는데 이사회 결과 기록 내용을 상임부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차기 이사회시 전 회 의록을 낭독 보고토록 했다.

중국산 약초가 1억원대 '산삼'으로 둔갑?

경찰청 외사과는 구랍 7일 중국산 약초를 불로산삼으로 속여 판매하려한 이모(52)씨를 사기미수혐의로 구속하고 강모(4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1일 시가 5,000원 상당의 '백선평'라는 중국산 신경통 치료용 약초를 구입, "오대산 불로산삼. 암, 불치병퇴치 특효" 등의 내용으로 신문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58)씨 등 2명에게 1뿌리당 500만~1억5,000만원에 팔려한 혐의다.



가짜 진짜 상품전시회

한국생약협회는 구랍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코엑스(KOEX) 전시관에서 관세청 주관으로 열린 "가짜진짜 상품전시회"에 참여, 50여종의 한약재 표본 및 국산과 수입한약재를 비교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